

2012 총선·대선 여론조사

광주 서갑·을, 북을 “교체” 열망 높아

광주·전남 지역의원 지지도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일보와 K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인 넘는 51.2%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6%로 전남지역 47.6%로 보다 8.4% 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

나타났다.
50% 이하를 기록한 지역구는 남구(49.3%), 광산(38.6%)로 집계됐다.

광산 을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는 총선 예비 후보가 단 1명(통합진보당)에 불과하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6%로 전남지역 47.6%, 장병완(34.3%), 박주선(33%), 김재균(27.5%), 조영택(23.8%), 김영진(21.5%) 순으로

광주 지역 중 한명도 지지율 과반 못넘겨

고흥·보성선 “새 인물 지지” 75.5% 최고

전남지역 일부 선거구 ‘인물이 없다’ 걱정

답은 광주가 32.1%, 전남이 43.4%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남의 경우, 비교적 보수적인 노년층 인구가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분석된다.

여기에 전남의 일부 지역구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을 펼칠만한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광주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0% 넘은 지역구는 서구 을(68.6%), 서구 갑(64.9%), 북구 을(60.8%)로 나타났다. 동구와 북구 갑은 각각 55.7%와 56.6%를 기록했으며 광산 갑도 53.7%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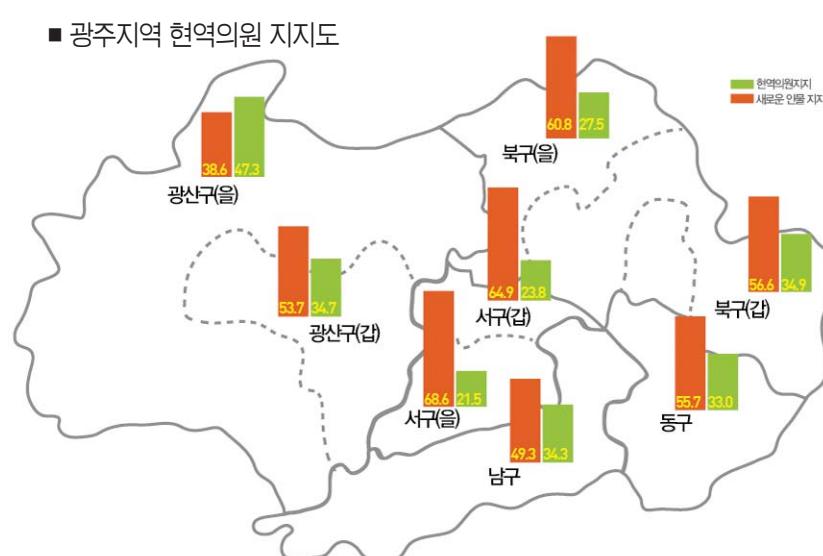
로 단 한명도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고흥·보성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75.5%로 집계됐으며 장흥·강진·영암이 60.9%, 여수 갑이 57.7%, 순천이 52.9%로 뒤를 이었다. 광양과 여수 은은 각각 44.3% 44.1%를 기록했으며 해남·완도·진도와 나주·화순이 각각 43.7%, 40.3%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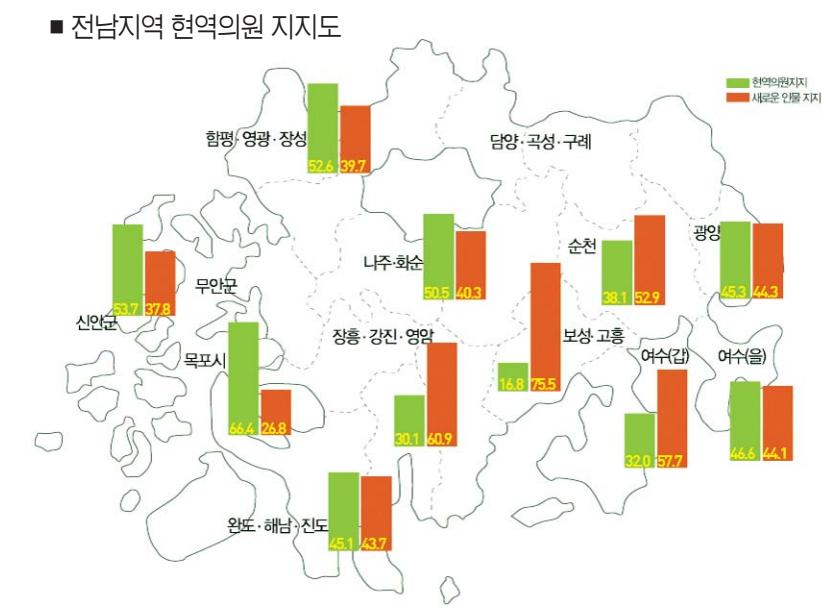
목포의 경우,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낮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지역 현역의원 지지도



■ 전남지역 현역의원 지지도



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

광주 지역 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유력 예비후보 간의 평균 지지율을 격차가 4.3%에 불과한 초박빙 판세를 나타냈다.

서구 을의 김영진 의원(20.5%)은 서대석 후보(24.1%)에 3.6%포인트 뒤졌으며 서구 갑 조영택 의원(28.2%)은 송갑석 후보(33.5%)에 비해 5.3%포인트 열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의 박주선 의원(29.4%)은 양형일 전 의원(28.8%)에 비해 0.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구의 장병완 의원(36.7%)과 김명진 후보(36.0%)의 격차는 0.7%포인트에 불과했다.

광원 갑의 김동철 의원(33.2%)과 전갑길 전 의원(31.9%)의 격차도 1.3%를 나타냈으며 북구를 김재균 의원(24.4%)은 최경주

광주 2곳 예비후보에 뒤져…전남선 혁명 강세

후보(21.7%)에 2.7%포인트 앞서는데 그쳤다.

전남의 경우,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에 유탄하는 47.6%를 나타냈으나 민주통합당 가상 후보 대결에서는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이 강세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없는 순천시와 담양·곡성·구례를 제외한 10곳의 지역구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인 곳은 장흥·강진·영암과 고흥·보성 등 2곳에 불과했다.

다만 함평·영광·장성에서는 이석형 후보

(39.2%)가 이낙연 의원(48.8%)를 한 자릿수 내로 따라붙었다.

나주·화순에서도 인지도에서 밀릴 것으로 관측했던 박선원 후보(34.9%)가 최인기 의원(48.3%)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식인 담양·곡성·구례는 고현석(30.5%), 국창근(27.4%), 이개호(20.5%)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으며 ‘젊은 피’를 내세운 김재우(10.3%) 후보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34.5%)과 노관규 후보(33.8%)가 초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에서는 노관규 후보(44.7%)의 뒤를 이행수 후보(23.5%)가 쫓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북구 갑의 경우, 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에서 무려 4명의 예비 후보가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 후보들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도 유권자가 가장 많은 해남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 후보 3명이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광주일보가 KBC 광주 방송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도와 총선 예비후보 및 대선 후보 지지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방법=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뷔’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ARS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성인 남녀 2만명(광주 8000명, 전남 12만명·선거구당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생성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20곳을 대상으로하는 방대한 규모의 RDD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ARS 회선 수만 연 4650채널에 달했고, 발송전 화건수 만 무려 166만5718통이었다. 실제 전화를 받은 수신자는 72만1718명에 달했고, 총 통화시간만 2860만6676초(약 47만6780분)에 달하는 등 국내 조사기관의 단독 조사로는 최대 규모인 셈이다.

또한, 20곳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각 1000명의 정량표본(성·연령·지역·유권자비례)을 얻기 위해 표집한 표본 수(끌어당기자)가 광주·전남 지역 전체 유권자수의 약 1.5%에 유탄하는 3만9756명이었다.

◇RDD 방식=광주와 전남 지역 고유번호인 061~062의 지역 번호를 이용, 컴퓨터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KT에 전화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를 끌어 조사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ARS 여론조사보다 정확성이 높다. 그동안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은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KT에 등재되지 않은 약 68.5%(광주)와 51.3%(전남)의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아예 배제됐다.

◇조사대상 선정=총선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2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와 현역의원으로 제한했다. 또 3곳의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조사대상은 순천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로 제한했다. 무안과 강진군 보궐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9일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조사는 광주·전남 통합조사의 경우 ±0.7%(95% 신뢰수준), 광주 지역 평균조사 ±1.1%, 전남 지역 평균조사 ±0.89%, 국회의원 지역구별 조사와 전남 보궐선거 지역구 조사 각각 ±3.1%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구 | 갑 |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송갑석 후원회
변화의 상징,
새로운 광주!

학력 및 경력

- 전남 고흥 출생 (1966년)
- 광덕고 · 전남대 졸업
- 전남대학교 종합생화학과 (1990년)
- 전대협 4기의장 (1990년)
- 美남기주대학(USC) 객원연구원
- (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현) 사단법인 광주학교 상임이사
- (현) 전남과학대학 객원교수

후원방법

- 송갑석 블로그 (<http://blog.naver.com/kssong3928>)에서 후원회가입 및 후원가능 (*블로그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직접 송갑석 후원회 예금계좌로 입금가능

후원안내

- 누구나 후원회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연간 총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액은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송 갑 석 후원회 (후원회장 홍보자 한희원)
• 후원회사무소 전화 : 062-385-1417

안철수, 야권 후보대결서도 1위

문재인 20.4% 손학규 15.6% 정동영 9.1%

대선후보 가상대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체 후보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38.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22.5%)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15.4%)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10.2%) ▲김문수 경기도지사(4.1%) ▲정동준 전 한나라당 대표(2.1%) 순이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광주일보 조사에서 14.1%를 얻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0.2%로, 3.9%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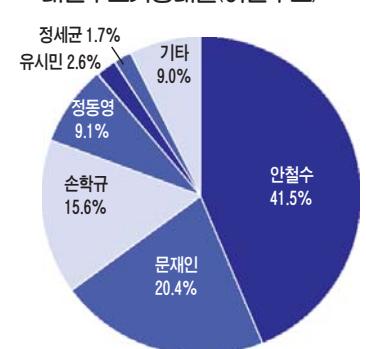
문 이사장도 25.9%에서 3.4%포인트 하락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26.4%에서 무려 11.0%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들이 지지율이 지난해 9월에 비해 하락한 것은 안철수 교수의 등장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 및 진보진영 유력 후보군 6명의 가상 대결에서도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41.5%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단독 선두를 달렸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15.6% ▲정동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9.1%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2.6% ▲정세균 전 민주당

■ 대선후보가상대결(0원후보)



최고위원 1.7% 순이었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는 9.0%였다.

문재인 이사장이 안 교수를 뒤쫓고 있지만, 지지율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안 교수에 대한 지지가 약간도이다. 손 전 대표는 문 이사장을 바짝 뒤쫓으며,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 교수가 전남(40.9%)보다는 광주(42.5%)에서 더 지지를 받고 있고, 문 대표도 광주(23.3%) 지지율이 전남(18.5%)보다 높았다.

반면 손 전 대표는 광주(14.6%)에 비해 전남(16.3%)의 지지율이 높았고, 정동영 전 최고위원도 광주(7.6%)보다는 전남(10.1%)에서 더 높게 나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 64.2%…한나라·통합진보 압도

정당 지지도 (%)

